2026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역량을 어떻게 키우며 경쟁자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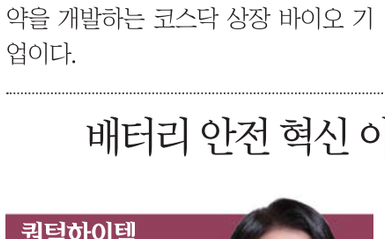
한국일보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회생의 키워드를 '혁신'으로 설정하고 경영의 혁신, 기술의 혁신, 품질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 아래 시상하였다.

혁신기업 대상에 선정된 기업의 공통점은 혁신하는 기업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고객감동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또 다른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기업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혁신기업 대상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의 혁신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며 매년 혁신기업 대상의 시상을 통해 혁신기업들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AI 기반 진단관리 고도화로 신뢰성 강화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

본 대상을 12년 연속 수상한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신사옥인 씨젠메디칼타워로 이전해 분자진단·질량분석·면역·AI 등 4개 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첨단 검사·연구 환경을 구축했다.

AI 기반 조직병리 진단 질관리 시스템 'SeeDP'와 차세대 검사정보 시스템 'SeeLIS'를 통해 디지털 기반 진단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재단은 자체 개발한 PCR 전 과정 자동화 시스템 '큐레카(CURECA)'와 글로벌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스타고라(STAgora)'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진단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전국 4개 권역에 지역 검사센터를 구축해 검체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으며, 오픈헬스케어와 협력해 알마티, 로스앤젤레스, 하노이 등에 검사센터 및 클리닉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종기 이사장은 "지속적인 구성원의 헌신과 도전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첨단 진단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최소침습 수술로 척추건강 수호

척탑병원

척추·관절의 전인적 치료 척탑병원

강병욱 대표원장

척탑병원(대표원장 강병욱 외 3인)은 환자 맞춤형 최소침습 척추수술을 꾸준히 시행하며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인 공로로 본 대상 혁신의료기관 부문에서 15년 연속 수상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심한 통증은 물론 감각 이상이나 마비까지 초래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해 환자의 신체적 부담과 회복 기간을 줄이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척탑병원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은 세 가지로, 1cm 미만 절개창 하나로 진행하는 단일공 척추내시경 수술, 두 개의 절개창을 활용해 기구 조작 범위를 넓힌 양방향 내시경 수술, 약 2.5cm 절개로 다발성 병변이나 척추 유합술 등 복잡한 치료가 가능한 미세현미경 수술이다.

각 수술법은 적용 범위와 장단점이 달라 환자 상태에 맞춘 선택이 중요하다.

신경외과 전문의 손시훈 척추센터장은 "환자별 병변 상태에 따라 세 가지 수술법에 모두 능통한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수술 결과는 집도의의 숙련도에 따라 부작용이나 재발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 플랫폼 기반 글로벌 신약·뷰티 시장 선점

샤페론



성승용 대표

본 대상을 5회 수상한 샤페론(대표 성승용)은 염증의 근본 원인을 조절하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이다.

핵심 경쟁력은 GPCR19 표적의 염증 복합체 억제제와 나노맙 기반의 면역항암제,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효율을 높이는 AI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 파이프라인 의존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후보물질을 창출하고 조기 기술이전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 3분기 미국 임상 2b상 결과 보고서 수령을 앞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당뇨병성 족부궤양, 알츠하이머 및 면역항암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이전 중심의 사업 모델에 뷰티 사업을 더하여 재정 안정성 기반을 구축했다.

회사는 "신약 개발을 통한 기술 사업화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확보한 원료물질을 활용하여 뷰티 사업을 신규 런칭했다"며 "향후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글로벌 조기 사업화와 뷰티 사업의 균형있는 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내재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K뷰티 개방형 유통플랫폼으로 세계 공략

크레이버코퍼레이션

Craver. WHAT DO YOU CRAVE?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이 단일 브랜드의 성공을 넘어 K-뷰티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메가히트 브랜드 '스킨1004'를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K-뷰티의 해외 확산을 이끄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798억 원이던 매출은 2025년 약 6,5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매출의 약 98%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 중심 구조를 갖췄다.

이러한 성장은 '스킨1004'의 제품 경쟁력과 함께 폐쇄적 B2B 유통을 브랜드와 리테일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유통 플랫폼'으로 전환한 전략이 주효했다.

현재 크레이버는 코스트코, 얼타(Ulta), H&M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유망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뷰티 플랫폼' 역할도 수행 중이다.

또한, 고기능 더마 라인 'LAB IN NATURE'와 올해 1월 '센텔라 테카' 라인을 출시하며 제품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크레이버코퍼레이션은 "유통은 단순 중개를 넘어 브랜드와 리테일러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야한다"며 "글로벌 신흥 시장에서 K-뷰티의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안전 혁신 이끄는 AI 플랫폼 개발

퀀텀하이텍



안현주 대표

퀀텀하이텍(대표 안현주)은 전기차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는 AI 기술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운행 환경과 사용 방식에 따라 열화 양상이 크게 달라지며, 누적된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배터리 관리 방식은 정기 점검이나 일회성 검사에 의존해 실제 주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퀀텀하이텍은 배터리를 단순 점검 대상이 아닌 '지속 관리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실주행 데이터 기반 상시 진단 기술과 AI 플랫폼 'TRIZ-AI™'을 개발했다.

TRIZ-AI™은 전압·전류·온도·충방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배터리 건전성(SOH)과 잔존수명(RUL)을 예측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한다.

특히 온도·부하·충방전 스트레스를 물리적 열화 메커니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AI와 결합해 진단 정밀도를 높인 점이 강점이다.

안현주 대표는 "전기차 배터리는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기술로 전기차 안전과 배터리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로 업계 혁신 선도

아담스컨설턴트

김성겸 대표 ADAMS

아담스컨설턴트(대표 김성겸)는 친환경 고기능 건설재료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 기술기업이다.

친환경·고성능 건설재료 생산과 기술컨설팅을 병행하며, 폐유리와 산업 부산물 등 폐자원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기술로 자원순환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고속도로 긴급 보수에 적용 가능한 속경성·고내구성 보수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 ES모르타르와 ES콘크리트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CCUS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건설재료다.

특허를 통해 기술 독자성을 확보했으며, 실제 고속도로 단면 보수 공사에 적용돼 품질과 현장 활용성을 입증했다.

또한 저탄소 콘크리트 배합 기술로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기존 대비 동등 이상의 강도를 확보해 건설 현장의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김성겸 대표는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을 확대하고, 공인 기술 인증을 통해 건설·환경·방재 분야 신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 솔루션으로 업계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동 영상 정합기술로 수술용 내비 혁신

에이포랩



박재영 대표

에이포랩(대표 박재영)은 수술 내비게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 의료 환경 혁신을 이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2007년부터 해당 분야에 집중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 자동 영상 정합 기술이 적용된 수술 내비게이션 솔루션 '자브(XAVE)'를 통해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기존 수술 내비게이션은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 수작업 기반 영상 정합으로 인해 준비 시간이 길고 성공률도 약 40% 수준에 머물렀다. 에이포랩은 비대칭 비드(마커)를 활용한 영상 정합 기술과 특수 플레이트 장착 방식을 통해 정합 과정을 자동화하고 1분 이내 정합을 구현했으며, 성공률 100%와 위치 오차 1㎜ 이하의 높은 정밀도를 달성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우수상 수상과 CES 2026 참가로 이어지며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박재영 대표는 "미국 FDA와 CE 인증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라며 "대학병원용 'XAVE Prime'과 보급형 'XAVE Air' 라인업을 통해 1·2차 병원까지 수술 내비게이션 활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진료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DX 플랫폼으로 미래 성장동력 견인

에이에스티홀딩스



이동우 대표

에이에스티홀딩스(대표 이동우)는 산업 현장의 복잡한 정보를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디지털 경험으로 전환하는 기술 기업이다. 기술 매뉴얼 제작과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XR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시티, 제조, 물류,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국토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 행정과 도시 관리 효율화를 지원했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행정 시스템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에이에스티홀딩스는 '팀네이버'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나·제다 3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했다. 약 6800㎢ 규모, 90만 동 이상의 건물을 3차원 데이터로 구현해 스마트시티 운영의 핵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동우 대표는 "젊은 개발자와 디지털 콘텐츠 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 DX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경영으로 FC와 고객 동반성장 실현

뉴니케



배문국 대표

뉴니케(대표 배문국)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대형 보험대리점(GA)으로 2005년 설립 이후 20년간 정도 경영을 지속하며 전국 23개 지점과 1,080명의 설계사 조직을 갖춘 상위권 보험자산관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매출 732억 원에서 2024년 2,114억 원으로 약 3배 성장했으며 2025년 2,458억 원으로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성장 배경에는 설계사 중심 경영과 조직 안정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배문국 대표는 "20년간 휴일 없이 일해왔다"며 "업계에선 일을 하지 않는 FC들이 많은데 뉴니케는 소속 FC들이 제대로 된 설계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뉴니케 FC 1인당 월평균 수수료는 1,810만 원으로 GA 및 생·손보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업외 이익으로 FC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하고 있어 FC들의 이직률이 낮고 보험 유지율은 높다.

배문국 대표는 "보험은 고객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신뢰 산업"이라며 "질적 성장을 통해 설계사와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X시대의 포렌식 보안솔루션 국산화

제로



박승필 대표

제로(대표 박승필)는 AI 기반 침해사고 분석 라이브 포렌식 기술을 중심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보안 전문기업이다. 다년간 축적한 침해사고 분석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이브 포렌식 솔루션 '제로서트(ZeroCERT)'를 개발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제로서트는 사고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공격 경로와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 챗봇 'Dr.Zero'를 통해 침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탐지부터 분석, 예측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구조를 갖췄다. 모든 분석은 로컬 환경에서 수행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데이터 외부 유출 우려를 최소화했으며,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 보안 요구가 높은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USB 기반 포터블 방식으로 설계돼 현장 대응의 편의성을 높였고, 외산에 의존하던 라이브 포렌식 솔루션을 국산화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박승필 대표는 "AI 전환(AX) 흐름에 맞춰 제로서트의 AI 고도화 작업은 막바지 단계"라며 "공공 인터넷망 보안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새 기준 세운다

올위드

ALLWITH

김시완 대표

올위드(대표 김시완)가 예방의학 기반의 반려동물 영양 솔루션 브랜드 '벳앤펫(Vet&Pet)'을 통해 시장 표준 정립에 나선다. 현재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은 관련 법규상 사료로 분류되어 기능성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는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제품 선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임상 활용을 제약하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올위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학 및 수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산업 내 '건강기능식품' 개념 정립과 시장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원료 선택부터 배합 비율, 제형 설계까지 전 과정에서 기능성과 기호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단순히 성분을 배합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의 발병 기전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를 통해 제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HACCP 인증 생산시설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김시완 대표는 "전국 단위의 직접 유통망을 구축해 동물병원에 신속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갈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예방의학에 필요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교육·산업·사회 연계로 사회 기여

혁신인물 부문



김민경 장안대 패션디자인과 교수

장안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김민경 교수는 연구·교육·산업·사회를 연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패션마케팅을 비롯해 친환경 마케팅, ESG, 지속가능성, 옴니채널, 메타버스, AI, 디지털 마케팅 등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며,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적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 가치와 실무 활용도를 동시에 갖춘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장안대학교 횡성교지의 쪽을 활용한 천연염색 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과 대학 교육을 연계했고,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고교-대학-산업을 연결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도 실천하고 있다.

김민경 교수는 "연구·교육·산업·사회의 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인재 양성,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차원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교육·산업·사회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